"현실과 통하지 않는 화두는 가짜"

〈通〉



화두, 나를 부르는 소리

박재현 지음/불광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어지러운 세상이다.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전문가들의 고준담론부터 온갖 멘토들의 충고가 독서 시장과 방송 매체에 넘쳐난다. 하지만 우울증 등 마음이 아픈 사람은 늘어만 가고 있다. 더 잘 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지만 삶은 더 힘들어지는 아이러니…. 모든 것이 풍족해 보이고, 세상은 첨단이라는 이름으로 격변해가고 있지만, 개인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 '나'는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다.

마음의 중심이 곧지 않으면 바깥의 탁한 기운에 휩싸이고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법. 혼란한 세상, 올곧게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생각의 중심축을 '나'로 가져와야 한다. 그 생각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일이 바로 '화두'다. 한국 선불교의 간화선 전문가이자 오랫동안 선(禪)으로 대중과 호흡해왔던 저자 박재현 교수(동명대 불교문화콘텐츠학과)는 삶속에서 선사들의 화두를 통해 어떻게 생각의 중심을 찾아갈지 풀이했다.

보는 만큼 안다고 했다. 생각도 마찬가지이다. 나를 시험하는 온갖 유혹을 쳐내고 담금질하고 다듬어야 이 혼침 같은 세상을 베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화두로 나를 찾기 위해서는 교감을 중요시 여긴다. 세상과 소통하고 느껴야 하는 것이다. 의례화되고 정형화된 것은 이미 화두가 아니다. 현실속에서 절박하게 들이닥쳐야 화두가 될 수 있다. 살아있는 화두는 끊임없이 현실과 교감한다. 그렇지 못한 화두는 가짜일 수밖에 없다. 박재현 교수의 '화두에 관한 지론'이다.

지금 이 순간의 절박함이 내면의 직관과 만나면 화두의 세계가 펼쳐진다. 의심이 강할수록 화두의 몸집은 거대해진다. 정해진 답도 없고, 남의 답이 나의 답이 될 수도 없다. 오직 자신만의 답을 찾아야 한다. 화두는 결코 선승들의 전유물이거나 고전에 적힌 글귀가 아니다. 지금 나와 맞닥뜨린 것만이 화두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저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화두 아닌 것이 없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과 문제의식에 두 눈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화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질문이자 해답이기 때문이다.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었다. 한 스님이 말했다. "깃발이 흔들리는구먼" 다른 스님이 말했다. "바람이 흔들리는 것일세" 옥신각신하는데, 육조혜능이 말했다.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깃발이 흔들리는 것도 아닐세. 그대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일세"

두 스님이 흠칫 놀랐다.

공안 〈깃발과 바람〉 中에서

'화두', 매 순간 던질 '절박한 의심'
혜능 마조 등은 어떻게 가르쳤을까?
1,700여 공안 중 뽑은 문 41가지

선가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깨침을 얻도록 하기 위해 제시한 문제가 공안, 즉 화두이다. 제자는 화두를 풀기 위해 분석적인 사고와 절박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어느 순간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져 답을 얻게 된다. 이러한 수행법을 '공안 수행'이라고 하는데, 선(禪)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수행법이다.

여기서 언급되는 '공안'과 '화두'는 같은 말이기도 하고 다른 말이기도 하다. 전문 학자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굳이 조금 자세히 들어가 구분하자면, 공안은 옛 선종 고승들이 화두를 선별해 엮은 선문답 사례집 같은 것이고, 화두는 넓은 의미에서 선문답 전체를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

마조 조주 남전 원오 혜심 벽장 등 위대한 선사들의 대화를 다룬 공안집으로는 〈벽암록〉 〈무문관〉 〈종용록〉 등이 유명한데, 공안의 종류가 1,700가지에 이른다고 전해진다. 공안이 선문답의 '문제 은행'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700 공안'이라는 용어는 선종 관련 역사서인 〈경덕전등록〉에 등장하는 선사의 총수가 1,701명인 데서 유래했다. 하지만 이는 공안집이 아닌 역사서이기 때문에 공안의 내용이 담겨있지는 않다.

선종과 공안집은 중국에서 탄생했지만 1,700 공안을 모두 볼 수 있는 전집은 중국서 편찬되지 않았다. 이 방대한 양의 공안들을 찾아볼 수 있는 공안집은 1226년경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간행된 〈선문염송〉이 유일하다. 이는 공안집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불교의 정수가 선종이 된 저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저자는 이 〈선문염송〉을 바탕으로 41개의 화두를 가려뽑아 현시대에 맞게 세련된 현대어로 새롭게 재해석했다. 여기에는 저자의 시사성 강한 발언과 철학적 질문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온다. 〈화두, 나를 부르는 소리〉는 저자 나름의 시각으로 사회적 문제를 가미한 내용을 두었다. 이어서 '공안'을 직접 번역해 소개하고, 해설편을 따로 두었다.

공안집에 기록된 화두가 단지 옛 시대의 글귀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사구(死句)'에 불과할 것이다. 공안집의 화두가 현시대의 시사 문제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죽은 언어가 아닌 새로운 화두로 독자들에게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자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그 속에는 우리의 삶과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생각하게 하는 강한 울림이 있다. 그 울림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은 스스로의 몫이다.

흔히 선문답서 주고받는 말은 모순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한다. "주장자는 주장자가 아니다", "대답하는 너는 네가 아니다"라는 식의 말들은 듣는 이를 당황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하지만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된다. 동어반복과 모순의 논리가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솎아져야 한다. 그런 것들을 모두 걷어내고 남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야 화두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사고의 전환을 이루고 직관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생각법을 이 책에서는 명확히 제시한다.

'화두'란 직관 세계로 들기 위한 법칙들

- 공안의 답은 없다. 남의 답이 결코 나의 답이 될 수 없다.
-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 별 뜻 없이 말하는 그 순간조차도 놓치지 않는다.
- 언제나 지금이 바로 내가 힘을 얻는 때이다.
- 도대체 뭐라고 해야 할까? '도대체'라고 말할 때의 막막함과 절망감을 부둥켜안고 가라.
- 인내는 참는 게 아니다. 그만둘 줄 아는 능력이라는 뜻이다.
-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아 버려야 비로소 내려놓는 것이다.
- "버려야 얻을 수 있다." 그 다짐에는 이미 얻겠다는 속셈이 들어 있다.
- 잘라라, 가리키는 손가락을. 손가락에서 마음을 떼어놓아라.
- 공연히 뭔가 숨겨진 뜻이라도 있는 양 억지 해석하지 마라.
- 엄마와 부처를 조심하라. 고정관념은 비수 끝에 발린 꿀이다.
- "모른다"고 하라. 넘겨짚지 않아야 비로소 말에 놀아나지 않는다.
- 부처란 이미 다 알아버린 사람이 아니라, 거듭 묻는 사람이다.

아함경을 통해 듣는 현법열반의 지혜



잡아함경 강의

마성 지음/인북스 펴냄/1만 8천원

붓다 사상의 원류(原流) 아함서 가려뽑은 45경

'아함(阿含)'이란 산스끄리뜨 아가마(gama)를 음역한 말이다. '아가마'는 (이쪽으로)+√gam(to go)서 파생된 명사로 '전승된(handed down)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이것을 중국의 역경승들이 '아함(阿含)'으로 음역했다. 제 1차 결집서 전승된 경전의 원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아함경은 오직 하나의 경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경전의 집록이다. 현존하는 한역 4아함 중, 잡아함경은 436년서 443년 사이에 중인도 출신 승려 구나발타라가 중국에 도착해 한역했는데, 총 50권 1,362경이다.

이 책은 이 중 초기불교의 핵심이 되는 교설 45경을 가려뽑았다. 저자 마성 스님은 붓다 사상의 원류인 아함서부터 출발해야 전체 불교 교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부처님 원음인 니까야는 아함경으로 번역되면서 그 분석적인 언어 구조를 상실하고 추상화되고 격의 불교로 변화된 감이 없지 않다고 한다. 이 책은 구나발타라 한역 경전의 원전을 제시한 뒤에 마성 스님의 번역과 해설을 싣는 형태로 구성됐다. 원전의 한역 문장을 충실하게 한글로 번역했으며, 해설에서는 해당 경전에 대응하는 빨리 니까야(잡아함의 대응경전은 상윳따 니까야)를 제시하고 한역과의 차이점을 상세히 분석해 부처님 설법의 근본 취지를 명확히 해설했다. 아함과 니까야에 대한 권위자로 인정받으며 빨리어에 능통한 마성 스님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학계서 주석을 유용하게 활용하기로 정평 있는 마성 스님은 이 책에서도 각주를 통해 난해한 불교교리와 불교사상의 변천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불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불교술어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그에 대한 출처를 분명히 밝혀, 초심자의 이해를 도왔다. 빨리 니까야와의 대조분석으로 인간적인 붓다의 생생한 육성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마성 스님 경전 강의의 특장(特長)이다.

'지금 여기'서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을 증득하라

붓다는 일생 동안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해 설했다. 괴로움의 소멸이란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증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열반을 증득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한 것이 곧 초기경전이다. 초기경전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교설은 잡아함경에 설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잡아함경서 설하는 붓다의 교설은 한마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 열반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지금 여기'서 열반을 증득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괴로움의 소멸인 열반을 증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이 책에 수록한 45경에는 오온무아(五蘊無我)에 관한 교설이 많이 수록되었다. 우리 인간들이 겪는 온갖 종류의 괴로움은 모두 '오온이 나(我)이다. 오온은 나의 것(我所)'이라는 잘못된 견해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온에 대한 집착서 벗어나면, 곧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잡아함경 45경을 다루는 이 책서 반복해 강조한 부처님 말씀이다.

김주일 기자

시·선·화로 본 수행자의 세상일지



꽃을 드니 미소짓다

제운 스님 지음/지혜의 나무 펴냄/1만 8천원



이 책은 염화미소(拈花微笑)로 세상에 이미 많이 알려진 말이다.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많은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법문하다 꽃을 들어 보이니 수제자 가섭이 미소로서 답을 한데서부터 나왔다. 저자는 그간 각종 언론매체 등서 칼럼 형식으로 발표한 선시를 한시 형태로 발표했다. '한시' 하면 통상적으로 과거의 시문으로만 여겨 딱딱하고 무겁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저자는 현대시인으로 현대인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풀어썼다. 저자의 말을 빌리면, "오늘 같은 스피드한 세상에 한 걸음을 Slow tempo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옛 우리의 선비들이 즐겨 썼고 불교 선 수행자들이 많이 써왔던 표현을 현대인에게 부합해서 인간의 가치를 상실하지 않고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김주일 기자

홈페이지 www.maumtour.com 문의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조계종 승려연수교육과정 인증프로그램
인증번호 : 대불교연인 2018-030호

2018 불교성지순례와
달라이라마 특별법문

접수마감 ※ 선착순 모집
6월 30일 까지

법회일정 2018년 9월 4일 ~ 9월 7일(4일간)
법회장소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주 관 동국대학교 티벳대장경 역경원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석천사

8월 28일(화) ~ 9월 9일(일)
A팀 달라이라마 법문 & 스리랑카 순례 13일
35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8월 28일(화) ~ 9월 9일(일)
B팀 달라이라마 법문 & 부탄 성지순례 13일
41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9월 02일(일) ~ 9월 9일(일)
C팀 불교란 무엇인가? 달라이라마 법문 8일
199만원 (보시금30만원포함)

8월 27일(월) ~ 9월 9일(일)
D팀 달라이라마 법문 & 인도 성지순례 14일
299만원 (보시금30만원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